

# 고린도를 치유한 십자가 도의 능력

민수기 21:4-9, 고린도전서 1:18-25

정운돈 목사님

2주 전에 중직자와 램네프에게 질문을 받았다. 뱀에 대한 질문이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뱀이 흙을 먹고 산다는데, 흙 속에 있는 지렁이를 먹는다는 건가요?” 고민이 되었을 것 같다.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나? 여기에서 뱀은 뱀이 아니라 사단을 말한다. 상징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과장법이나 비유법으로 표현된 부분도 있다. 눈이 범죄하면 빼어 버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눈이 없어질 것이다. (웃음) 상징, 과장이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어린 램네프인데 금방 이해하더라. 뱀에게 여러 번 먹혔던 모양이다. (웃음) 중직자 한 분은 질문하더라. “뱀은 나쁜 것인데 왜 민수기 21장에서는 뱀을 바라보면 낮게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왜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나. 나의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뱀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실 정도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원죄, 자범죄,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가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게 복음이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한다. 길 때문에 원망하고 음식 때문에 원망한다.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라고 원망한다. 만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말씀을 말하는데 말이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주 설교도 그리스도, 다음 주 설교도 그리스도, 매일 똑같이 지겹다.” 이런 원망을 한 셈이다. 다양한 모든 지식으로도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다. 매일 똑같은 만나 같아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다. 금요일에는 주로 중요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 후에 알고 봤더니 처음 오신 분이 있었다. 말씀이 좀 이해가 되었겠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는 것이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한다.

## 서론 : 고린도전서 이해

(1)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셨다는 데 있다. 만물과 인간의 창조는 인간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만물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만물이 진화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우주가 저절로 생겨서 그렇게 정교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믿음이다. 우연히 생기고, 우연히 자전하고, 우연히 공전하고, 적절한 거리에 놓여있어서 만물이 그 덕분에 소생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어렵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믿음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한 일이 되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다고 느끼게 된다. 늘 원망하고 분열하고 잘난 척을 한다. 그러나 연약하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임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가 많고 교만한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켜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서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되고, 그 연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나눌 고린도교회의 부흥과 치유도,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처와 문제가 많은 고린도교회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치유되었고, 분열되었던 그들은 세계선교를 위해서 사도바울을 후원하는 교회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2)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을 먼저 이해해 보아야 한다.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① 고린도라는 도시는 특별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무역과 상업이 번창했던 항구도시였다. 지금 고린도에는 운하가 있다. 아가야 지방은 잘록한 허리 같은 지협으로 이어져 있었다. 양쪽에 항구가 있었는데, 로마 쪽에 있는 항구는 레가이온이었고, 반대쪽 에게해에 면한 항구는 겐그레아였다. 이 양쪽을 6km 정도 되는 거리로 연결하는 도시가 고린도였다. 그러니 고린도는 번창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는 부유한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② 최고의 학자들이 있었던 아테네와 가까웠으므로 지식인들도 많았다.  
 ③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다. 고린도에는 신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유명한 것이 아폴론 신전과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 아폴론 신은 제우스 신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신이었고, 아프로디테, 즉 라틴 식으로는 비너스는 아름다움과 생식기와 다산의 여신이었다.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대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 안에는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다. 이들이 거의 매춘부들이었다. 항구도시이다 보니까, 배를 오래 타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이 와서, 풍랑을 막는 제사도 지내고, 배를 타면서 느꼈던 육체의 정욕을 채웠다.

④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교회였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뉴욕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세련되다, 앞서간다 하는 것들이다. 고린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음란과 타락이었다.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설립된 고린도교회는 많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전도되어 온 성도들도 안 좋은 사회적, 영적 배경과 바뀌지 않은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교회로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등, 문제가 생기면 과거의 체질로 돌아가 버렸다.

## 1. 고린도교회가 직면한 문제들

큰 첫 번째로, 고린도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린도전서 16장 전체의 내용을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중요한 몇 가지를 설명하고, 나머지는 목록만 말씀드리겠다.

(1)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었다.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하고 파벌을 만들었던 것이다. 분열하고,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참 많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당화될 수 없다. 저 사람이 저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실수했으니까 미울 수 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결단은 안 하면서 말 안 하기로 하는 결단은 자연스럽게 잘 한다. 우리교회는 여러 층이고 엘리베이터도 두 대라서 말 안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피해서 살 수 있다. (웃음) 작은 교회에서는 어쨌든 봐야 하는데 말이다. 여러분, 완전히 치유되시기를 축원한다. 그렇게 분열하고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안 맞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던 이유는, 오직 복음 체질이 덜 되었기 때문이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마음, 생각, 기준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은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시지 않았다. 그런데도 화해가 안 되는 것은, 아직 진정한 주인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시간표가 필요한 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어야 한다. 바울 같은 대단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고린도교회에는 문제가 너무 많았으니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고린도교회는 복음을 받은 후 짧은 시간 안에 부흥이 되었던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불과 4년 만에 그렇게 부흥되었으니, 문제가 있었던 것도 당연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바울이 꾸짖으면서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기가 뭘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아니었으면서 우리를 지적한다고?”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원래 겸손한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후서에 나온다. 깊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읽어 보면,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세상의 지식과 철학으로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방법으로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인문학 공부를 했는데, 모든 학문의 뿌리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였다. 모든 철학은 플라톤에서 시작해서 플라톤에서 끝난다고 한다. 첨단 과학의 시대인데도 그들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한다. 그만큼 그리스는 철학과 학문이 발달했던 것이다. 그랬던 이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볼 때는 바보같은 일이었다. 그들의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보면 황당하고 어리석은 소리로 들렸다. 지금도 교회 설교를 무식한 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교회를 안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첨단 기술과 지식으로도 우리의 원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종교로도 사탄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비트코인도 블록체인도 문제 없다고 하지만, 결국 인간에게는 한계가 생기게 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그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 10년 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학자들은 미국 시대가 끝났다고 강의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경제가 크게 회복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30년 전에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금 나라의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가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전부 영적 서밋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어떤 빅데이터로 인간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 해도, 인간에게 오는 저주 재앙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십자가의 도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바울, 브리스가 부부, 디모데였다. 이들이 치유서밋, 서밋치유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란다. 현장으로 들어가서 서밋도 치유하는 것이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엘리트도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치유 서밋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3) 심지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안 믿어지니까.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부활을 못 믿기도 한다. 그들에게 믿음을 설명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그제 치유의 서밋이다.

(4) 윤리, 도덕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동조하는 분위기가 고린도교회 안에 있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제가 많았던 것이다. 교회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사회에 가득하다.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을 치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신천지는 죽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얼마나 불쌍한가? 곧 죽을 텐데. 그래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신천지 교리를 따르고 있다. 요즘 보면 신천지들이 메일을 그렇게 많이 보내온다. 몰래 들어와서 꼬드긴다. 교회가 바벨론이라고 한다. 타락했다고 한다. 추수꾼으로 가서 건진다고 한다. 그렇게 사기를 친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배우들이 이상한 종교에 빠지고 있다. 복음으로 그들까지 치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5) 지나치게 개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라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다. 머리에 쓰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는데, 그것을 벗어던진 것이다.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되고 너무 뒤쳐져서도 안 된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교회에 남자들, 여자들이 구분되어서 앉았다. 일제 때에는 아예 양쪽을 커튼으로 가려 놓았었다. 현장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하는 것이다. 너무 충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고린도교회에서는 너무 앞서나가니까 문제가 온 것이다. 요셉, 다니엘은 우상숭배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불신자 임금을 도와주면서 서밋으로 올라갔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 2. 고린도교회의 문제에 대해 바울이 전달한 해답

그러면 사도바울은 이런 고린도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의 답을 주었는가?

(1)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하고 온전히 합하다고 말씀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이다.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이며 기준은 기준인 것이다. 고린도전서 1:10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교회의 성도들은 천국 백성이며 그리스도 진리의 군대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군대는 똑같이 먹고 똑같이 걷게 되어 있다.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 사이에 있는 것이 훈련이다. 예배다. 그제 신앙생활이다. 말씀이다. 광야길을 그렇게 걸어가 갈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된다. 윈니스되어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 그제 제1, 2, 3 RUTC운동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래서 같은 강단의 메시지를 타는 것이다. 이러면서 바울은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이야기를 한다. 세례를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라면 그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7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복음을 받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세례를 베풀러 오지 않았다’고 한다. 왜인가?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과벌을 만들어 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을 바울이 자랑한 것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고 찾아가시기 바란다.

(2)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가, 오래된 우상숭배로 인해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던 고린도교회를 치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대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하겠다고 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2:1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뿌리 깊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뿔뿔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이다. 오늘도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문제가 올 때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라.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래서 요한복음 19:30에 ‘다 이루었다고 했다. 나는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 나는 참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자식들을 보니까 엄마에게, 아빠에게 섭섭한 게 많더라. 철이 들어 가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상처받은 것도 많았다. 분명히 사랑하는데도 그렇다. 그래서 자녀들도 아빠, 엄마를 지나치게 바라보지 마라. 주만 바라봐라. 그래서 치유받아서 오히려 도와줘라. 그러면 보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가 보일 것이다. 흑암이 꺾이고 영안이 열려야 이게 보인다.

(3) 육신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변했는지 알려주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육적으로, 삶으로, 너무 상처가 많았고 더러워져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한다. 고린도전서 3:16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되리라.”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즘은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란다. 99세까지, 120세까지는 건강하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바란다. 아무 거나 좋다고 먹지 마라. 먹어서 문제지, 안 먹어서 문제가 아니다. 근거 없는 것은 먹지 마라. 차라리 콜라를 마셔라. (웃음) 근거 없는 보약보다는 콜라가 낫다. 일 년에 한 병 쯤. (웃음) 노환우 목사님이라는 분은 구르기를 실천하는데, 이분은 모든 병은 위치가 틀린 데에서 온다고 이야기하시더라. 장기가 제 자리에 있으면 다 낫는다고 한다. 많은 병도 다 치유할 수 있다고 한다. 류목사님은 1분에 다섯 번, 여섯 번 길게 호흡한다. 기도도 하고 호흡도 가다듬고, 얼마나 좋나. 나는 미세먼지 때문에 약간 갈등하고 있지만. (웃음) 성령인도를 받아라.

(4) 다양한 은사를 받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말한다.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1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그래서 바울은 13:13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것이 믿음인데 여기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한다. 믿음의 결과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 결론 : 한국과 세계 교회를 치유하는 네 가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러면 고린도교회보다 더 문제가 많은 한국과 세계교회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 (1)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교회와 시대를 치유할 수 있다.
- (2) 오직 말씀으로만 교회와 시대를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목, 무릎, 허리에, 수영할 만큼 가득차야 한다.
- (3)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드러난다. 말씀이 율법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병을 수술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되는 것이다. 우리를 수술하고 나서 감싸주고 치유해주고 덮어주어야 하지 않나. 그제 복음의 말씀이다. 로마서 5:8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로마서 8:2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요한복음 3:16에, “하나님이 세상을,” 곧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 (4) 오직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누릴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시대까지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모든 성도들이 서밋까지 치유하는 제자가 되어서 치유의 서밋으로 세계 되시기를 축원한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을 하는 데 일꾼으로 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